

호남 인사 소외… 7대 권력기관 수장 나올까

검찰총장 소병철·국정원장 김관진·금융위원장 임종룡 거론… 취임 직후 발표 예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9일까지 실시한 내각과 청와대의 주요 인선 결과, 호남 인사 소외가 심각하다는 분석이 일면서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에서는 호남 인사 충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리는 국가정보원장·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이른바 4대 사정기관장과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국세청장 등 3대 경제권력 수장이다.

일단 이를 기관장에 대한 인선은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도 취임식 직후 사정기관장을 발표해왔다.

◇**빅4**=교체가 유력한 원세훈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3선 의원 출신의

권영세 전 의원, 국정원 2차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 안기부 2차장을 지낸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상임고문 등이 하미평에 오른다. 하지만, 그동안의 호남 출신 인사 비판 때문에 호남 출신인 김관진 현 국방장관을 국정원장으로 ‘깜짝 발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7일 김진태 대검 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채동욱 서울고검장 등 3명을 추천한 상태다. 조직 안정 측면에서는 총장권한 대행인 김 차장이, 지역안배 측면에서 선 전남 출신인 소 고검장이 유리한 상황이다.

양간 감사원장은 2011년 3월 임명

돼 헌법상 임기(4년)의 절반만 채운 상황이어서 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도사퇴할 경우 안희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지난 5월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은 재신임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박 당선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경찰청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교체할 경우 현직 치안감인 강경량



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에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임종룡(보성) 국무총리실장, 신재운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현직 관료들이 두루 거론된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친박계이며 서개혁 성향이 강한 새누리당 유풍민 의원, 이해훈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 서동원 전 공정위 부위원장 등 전현직 관료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장 후보로는 조현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윤준 국세청 차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백운찬 기부처 세제실장 등이 하미평에 오른다. /박지경기자 jkpark@



“순천 만정원 박람회는 전남의 자산”

박지사 순천 순방… 시민단체 “대선발언 사과하라”

박준영 전남지사는 19일 “순천만국 제정원박람회는 두고두고 활용 가능한 전남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을 첫 시군 순방을 위해 이날 순천 시청을 찾은 박 지사는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훈훈한 공동체 정신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의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사업’ 확대 진의에 대해선 “여수~광양~순천~고흥을 연결하는 미래형 소재산업 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형 할인마트(코스트코) 입점 반대 여론과 관련해선 “허가기관인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부정적 입장”이라며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계 대형 할인마트 입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박 지사의 “지난 대선 호남 물표는 충동적 선택”이라는 발언에 반발한 순천농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천시청 입구에서 ‘박지사 퇴진’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 전남 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대선 민심은 ‘무겁지 못한 충동적 선택’이라고 헐뜯은 박준영 전남지사는 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의료환경 열악… 더 많은 진료소 희망합니다”

■ 캄보디아 쌈낭 교수 인터뷰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 개설… 주민에 큰 도움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각종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많은데, 한국에서 도와주 특별한 도시인 광주에서 도와준다니 고마울 뿐입니다”

캄보디아 내 ‘광주진료소’ 개설을 돋고 있는 쌈낭(Samnang HENG·사진) 캄보디아 대학 교수는 18일 “캄보디아 내에는 아직도 의료지원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 국민을 위해 진료소를 개설해 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

광주·전남 지자체 변호사 채용 봇물

주민 법률서비스 강화·각종 소송 적극 대응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소 문제와 관련해 “광주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좀 편어지더라도 프놈펜이 아닌 의료지원이 절실했던 지역 또는 꼭 필요한 지역에 개설하면 좋겠다”며

“하지만, 광주에서 원하는 장소 어디든 개설이 가능하고, 모든 주 정부들이 자신의 지역에 광주 진료소가 개설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 내 일부 주 정부에서는 광주 진료소 유치를 위해 토지 제공, 도로 및 수도·전기 등의 인프라 지원, 봉사자들의 비자 면제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

다”며 “언제, 어디든 캄보디아 내 광주 진료소 개설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쌈낭 교수는 “최근 캄보디아 지방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부 주 정부는 광주 진료소가 응급실까지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클리닉도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예일대 출신인 쌈낭 교수는 캄보디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청년 지식운동 등의 시민사회활동을 활성하게 펼치고 있다.

/최원기자 cki@kwangju.co.kr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안전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은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자체들은 시급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과 진행 예정인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를 채용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없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채용 공고를 냈거나 멀 예정이다.

보성군은 6급 상당 대우의 변호사 공모를 진행 중이다. 1차 공모에 지원자가 없었으나 2차 공모에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 1명이 응모해 최근 면접을 마쳤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

으면 법무담당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산구청도 고문변호사단과 별개로 상시 근로할 수 있는 변호사를 1명 고용하려고 다음달께 공고 할 예정이다.

함평군도 오는 5월에 군정 업무의 각종 법률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며 신안군도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자체에서는 5급 상당 위주로 뽑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6급 상당 대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일선 시·군이 법률 관련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 채용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전남도 등 광역자체단체에서는 간혹 변호사를 고용하곤 했지만 기초지자체에서는 변호사 채용이 드문 일이기 때문에 관심이 솔리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시·군·구에 따르면 주민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각종 법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은 시급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과 진행 예정인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를 채용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없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채용 공고를 냈거나 멀 예정이다.

보성군은 6급 상당 대우의 변호사 공모를 진행 중이다. 1차 공모에 지원자가 없었으나 2차 공모에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 1명이 응모해 최근 면접을 마쳤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

으면 법무담당으로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산구청도 고문변호사단과 별개로 상시 근로할 수 있는 변호사를 1명 고용하려고 다음달께 공고 할 예정이다.

함평군도 오는 5월에 군정 업무의 각종 법률 업무를 전담할 변호사를 채용할 예정이며 신안군도 변호사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자체에서는 5급 상당 위주로 뽑고 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6급 상당 대우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올해 공무원 723명 뽑는다

새터민 첫 채용

규모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의 공직 진출 기회를 대폭 확충해 장애인 34명, 저소득층 24명, 새터민 1명, 고졸자 8명 총 67명은 일반 응시자와 구분 모집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처음으로 새터민을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올해 일반직 공무원 700여명을 뽑는다. 전남도가 20일 공고한 ‘2013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 채용 규모는 총 723명으로 도청 29명, 시군 694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38명, 8급 20명, 9급 618명, 지도사 26명, 연구원 21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418명)보다 73%(305명)나 늘어난

을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전남도 내로 돼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전남도 내에 거주했어야 응시 가능하고, 응시원서는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감사관에 방옥길 과장 임명

전남도 감사관에 방옥길 현 전남도 회계과장이 임명됐다. 전남도는 19일 “최근 개방형 직위로 감사관 공모를 3차례 실시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내부 인사 중 감사실 근무경력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방 감사관은 내년 1월까지 준국장급인 감사관직을 수행하게 되며, 도는 임기 후 개방형 직위로 차기 감



사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후임 회계 과장에는 지방고시(8회) 출신인 김기홍 기획담당 사무관이 직무대리로 이동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0년 전통 데려오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진료문의 062)227-7575

울명철학

人間의 길 흥화복이라는 것이 과연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 또는 운명적 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 노력과 기회로 강호의 영웅호걸이 탄생되고, 21세기 혁명문명 아래에서도 죽듯이 제대로 못먹고, 신음을 하는 노후 인생과 빈민들은 정녕 노력을 안해서였을까?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의 분수(운명)을 모르고, 분마처럼 날뛰면서 청춘과 일생을 헌생 낭사한 결과는 어떠한가?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흐름에서 참으로 선천과 운명적으로 부여받은 스스로의 복덕과 관운 재운 부부 자식 학운 건강등이 자신의 숙명판에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참고조심 해보는 것이 이해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 단 맞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

중국·대만·대한민국 자미수도 대가!

경천동지할 비술인(천문 자미수도)로 수십년을 모여온 경지에서 인생길을 통해 하게 안내해, 역술과 풍수자리 첨성의 길 기초부터 무료 개인지도 자격제한 없음(무속인, 역술인 활동)

김정강의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댐 상류 소쇄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진짜곰탕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 모집

국가공인 한자·한문 (특급·1급·2급·3급)
지 도 자 사 자 자 격 등 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